

대한민국 유일의 중소기업 CEO를 위한 경제·경영 전문지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NEWIBK

제27대

김성태 신임 은행장 취임

P.02

CEO ACADEMY

2023

세계 경제 전망

P.04

MARKET FINDER

해외 진출의 쉽고 빠른 지름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컨소시엄'

P.42

January

Vol 214



CEO STORY

신계철 에스에스오토론(주) 대표

도전을 성취로 일궈내는
혁신자 생존 革新者生存

SSO-TTBB-300

국내 유일의 복합 성능을 탑재한
픽 앤 플레이스 Pick & Place 장비로,
반도체 후공정에서 보트 Boat에 담긴
유태를 트레이로 담거나,
트레이에 담긴 유태를 보트로 옮겨
담을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 중이다.

CONTENTS

2023. January. Vol_214



발행일 2023년 1월 13일(통권 제214호)
등록번호 서울종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조봉현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7)
Tel 02-729-6520
Fax 0505-077-0850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 제작 한국경제매거진㈜
인쇄소 (주)교화사
문의 02-360-4816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찾아가는 이메일 서비스
구독 신청



<중소기업 CEO 리포트>
지난호 보기

CEO ACADEMY 04~19



2023 대전망

04_ OVERSEAS OUTLOOK

2023년 세계 경제 전망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

08_ DOMESTIC OUTLOOK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는 해

12_ CONSUMPTION TREND

2023년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열정 소비가 온다

16_ DIGITAL TREND

NFT, 메타버스 그리고 ESG

18_ SURVEY

2023년 중소기업 경영 환경 진단

01_ 시론

새해, <오징어게임>에서 지혜 경영을 배우자

02_ NEWIBK

제27대 김성태 신임 은행장 취임
'가치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고객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_ CEO STORY

신계철 에스에스오토론(주)대표
도전을 성취로 일궈내는 혁신 생존 革新生存

26_ ESG FOCUS

글로벌 제품 탄소 규제와
2023년 중소기업의 과제

30_ IBKEXPOLORING_1

중소·중견기업, 규제 모래주머니 풀다

32_ IBKEXPOLORING_2

한국-베트남 상생의 파트너로
나아갈 미래를 약속하다

34_ IBK & START-UPS

IBK창공인_ (주)블럭나인 손영환 대표
IBK창공인_ (주)어라운드블루 최준영 대표
IBK창공인_ (주)오티아이코리아 박수진 대표
IBK창공인_ (주)필로포스 정중호 대표

38_ GLOBAL MARKET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 경제 살릴까?

42_ MARKET FINDER

해외 진출의 쉽고 빠른 지름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컨소시엄'

44_ COMPANY & LAW TAX

2023년 바뀌는 세법개정안

46_ COMPANY & LAW LABOR

2023년 바뀌는 노무 이슈

48_ ECONOMIC REVIEW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50_ CEO'S GURU

문제가 기회를 만든다, AMD 리사 수

52_ IBK POLICY

쉽고 빠르고 안전한 '새로운 IBK기업뱅크'



시론



IBK경제연구소 소장
부행장 조봉현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겨운 한 해가 되겠지만 모조록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다시 뛰는 2023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 가장 추운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받는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은 급감하는데, 늘어난 기업부채로 이자 부담은 커지고 기업 경영은 악화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금융 시장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2023년은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길에 서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생존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에 에미상을 휩쓴 <오징어게임>에서 교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게임이었던 '무궁화 꽃이 피

었습니다'에서는 빠른 상황 판단과 유연한 전략이 생존 비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 '달고나 뽑기'는 어떤 선택지에도 해결 전략은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는 혁신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역량은 약하지만,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단결하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구슬치기'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입니다. 이 게임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통찰이 필요하며,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집중적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 게임이 '오징어게임'입니다. 오징어게임에서는 좁은 골목을 통과하면 '암행어사'가 되어 두 발로 자유롭게 뛰어 다닐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한 기업들은 그 경험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 나갈 수 있습니다.

토끼처럼 위기의 벽을 지혜롭게 넘고 정상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가치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고객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 신임 은행장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2023년을 맞이했다. 이번 취임식에서 김성태 신임 은행장은 ‘튼튼한 은행’과 ‘반듯한 금융’을 경영 키워드로 제시하고, ‘가치금융’을 통해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튼튼한 은행’

지난 1월 3일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제27대 김성태 은행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1989년 입행해 미래기획실장, 경영전략그룹장, IBK캐피탈 대표이사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왔다.

김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가치금융’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중소기업금융이라는 ‘핵심 가치’를 강화하고 고객·사회·직원을 위한 ‘미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은행, 자회사가 함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융합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은행장이 ‘가치 있는 금융’ 실현을 위해 제시한 2가지 키워드는 ‘튼튼한 은행’과 ‘반듯한 금융’이다.

우선 ‘튼튼한 은행’은 IBK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은행이다. 그가 제시한 IBK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은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미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는 제27대 김성태 IBK기업은행 신임 은행장
김 은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튼튼한 은행과 반듯한 금융을 경영 키워드로 제시했다.

래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김 은행장은 IBK기업은행이 혁신유망기업 성장 지원,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 종합 제공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길 꿈꾸고 있다.

그는 “튼튼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론 사업 부문별 책임경영 강화와 함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체 경쟁력을 높여 전체적인 성장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취약고객군을 적시에 선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신용위험 관리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유망기업 육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자회사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은행장은 “중소기업의 살 길은 기술”이라며 “획기적인 지원 제도와 서비스를 도입하고 신기술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소리 듣는 IBK기업은행 김 은행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거래 기업인 동보를 방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고객과 사회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반듯한 금융을 위해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IBK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의 변하지 않는 최우선 가치는 고객 신뢰이기 때문에 은행 이익을 위해 고객 이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상품,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경영 평가 등을 개선하고, 고객을 최우선하는 경영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건전한 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철저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IBK기업은행의 역할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김 은행장은 “저신용·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 포용력을 높ی겠다”며 “아직 주목받지 못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를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은행장은 “IBK기업은행이 한국 금융의 등대가 되어 중소기업과 고객, 금융 산업을 기회와 미래의 향로로 안내하고 새롭게 도약하자”고 당부했다.

김 은행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IBK창공^{창공} 마포, 거래 기업 동보, 남동공단 지점 등을 방문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듣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새롭게 도약하는 IBK기업은행”을 위해 가슴 설레는 여정을 시작했다. 



2023년 세계 경제 전망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

미국의 2022년 최종 금리 5.1% 미국 Fed는 2022년 12월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려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며 그 이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의 키워드는 '긴축과 분열 속에 억눌린 회복'이다. '긴축'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출 시행 후 추가 재정지출 여력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을 묘사한다. '파편화'는 코로나19 유행, 미국·중국 간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되고 전 세계가 과거 냉전 때처럼 블록화되는 경향을 지칭한다.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세밀한 재정정책과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긴축과 분열로 회복이 억제·지연되고 있다. 경제와 안보 문제가 맞물리면서 해결책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의 근거가 되는 5개의 가정

- ① 코로나19 등의 추가적인 보건위기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2023년 상반기까지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
- ③ 물밀 협상이 진행되나 러·우 전쟁에 진전은 없다.
- ④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급격한 자본 이탈은 상정하지 않는다.
- 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목표 범위 내에 있지만 낮게 설정한다.

어두운 전망 속 최악의 시나리오

현재 시점에 제시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욱 낮출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의 실물 전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정부는 물론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크게 확대되었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기와 비교해 긴축의 속도 및 강도가 너무 빠른 데다, 공급 측면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데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경우 역자산 효과, 개인과 한계기업의 파산, 금융경색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둘째는 재정정책의 딜레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주요국들은 추세 대비 재정지출을 빠르게 늘려 보건·경제위기에 대응했다. 이러한 추가 지출과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 정부들은 현재 예산 제약에 시달리는 중이다. 통화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재정건정성을 재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지만 세계 경제 상황이 복잡한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셋째는 러·우 전쟁과 미·중 전략적 경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구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로 시작된 지난 30년간의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있고, 블록 간 단절과 경쟁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중이다.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및 주요 이슈

미국
0.6%

물가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민간 부문 경제활동 위축

새로운 정치 지형이 정부 정책 시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일본
1.5%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확대 기대 어려움

2023년 4월까지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

EU
0%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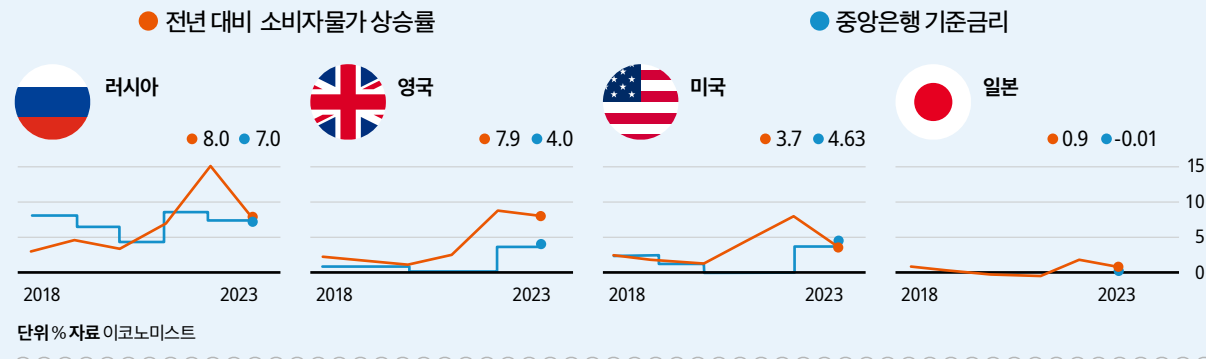
금리 인상 추세와 공급망 교란에 대한 공동 대응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중국
4.8%

적극적 통화 및 재정정책 효과 기대 대내외 불안 요인 산재

인도
5.6%

FDI 환경 개선과 중국 이외 투자처 모색 효과 나타나기 시작



낮은 성장률 점수 받은 주요국들

주요 국가들 가운데 먼저 미국의 2023년 성장률은 2022년 5월 2.2%에서 이번에는 0.6%로 1.6%포인트 낮게 책정되었다.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이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재정정책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당분간 경기보다는 물가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고금리 기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에서의 새로운 정치 지형이 정부의 정책 시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 지역은 2.4%에서 0%로 대폭 낮아졌다. 러·우 전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유럽은 전쟁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상황의 신속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금리 인상 추세와 공급망 교란에 대한 공동 대응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이 0% 성장률 결정의 배경이다.

일본의 경우 전망치를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가계의 높은

저축률과 기업 이익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성장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적어도 2023년 4월 새 일본은행 총재가 부임할 때까지는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으나 근원소비자물가지수 Core CPI는 아직 1%대에 머물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5.3%에서 4.8%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20차 당대회 이후 제시된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중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 하락과 부채 리스크, 최근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미국과의 갈등 심화,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중국의 재정수입이 계속 줄고 통화정책 여력이 약화되면서 2023년 경기부양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다.

인도의 성장률은 6.5%에서 5.6%로 0.9%포인트 낮췄다. 인도 정부의 꾸준한 외국인 직접투자 FDI 환경 개선 노력과 중국 이외의 투자처 모색이 효과를 나타내는 중이다. 다만 높은 물가 상승률, 주요국 통화 긴축,

지정학적 불안 등 여러 여건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리스크 관리에 레이더 가동해야

지금까지의 전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경제 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평소보다 리스크 요인들의 실현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물가 압박, 공급망 혼란, 지정학적 위기, 정책 역량 소진 등 위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작은 충격이라도 시스템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둘째, 급격한 유동성 감소로 인한 피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동성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가계와 기업에 충분

히 적응할 시간이 주어졌으나, 현재의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 폭은 훨씬 빠르고 커서 각종 투자사업의 연기나 취소, 한계 기업 퇴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산 시장 변동성의 확대에 따라 정부는 제한된 자원하에서 재정 및 금융정책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와 지역화가 단기적 문제가 아닌 장기적 추세를 인식해야 한다. 생산에의 장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을 들여 공급망 체계를 안정화하고 재편하는 것이 과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침체기일수록 신성장 산업 발굴, 기존 산업과 신기술의 결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해야 한다.

Advice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비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안

- ① 리스크 요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 ② 급격한 유동성 감소로 인한 피해에 주목
- ③ 장기적인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현실적 준비 자세



물가 안정을 향한 미국의 계속된 금리 인상 파월 의장은 2022년 12월 14일 인플레이션 진정을 확인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계속된 긴축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뉴욕증시도 계속 하락했다.



2023년에도 내려가지 않는 물가 압력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2022년 대비 내려가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큰 폭으로 상회할 전망이다.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는 해

2023년을 상하반기로 나누면 금리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낮아진 뒤,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시장금리도 일부 하락하면서 글로벌 경기 부진이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23년 우리 경제는 상저하고의 모습으로 전망된다.

• 2022년은 우리 경제가 마침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출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자재 수급 차질도 점차 완화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로 공급한 유동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합쳐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시기를 지내온 경험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상승에 대한 신호에 둔감하게 대응하도록 한 원인이 되었다. 2022년과 2023년은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방향이 실물경기를 좌우하는 시기다.

내수는 개선세 유지하나 수출은 부진

우선 최근 국내 경기 상황을 보자.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 특히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고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요가 확대되는 슈퍼 사이클의 상승기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의 경기 하락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생산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재고가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30%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은 부품 수급 차질이 완화되면

서 회복되고 있지만, 전체 수출의 부진한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반면 내수는 아직까지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한 대면서비스업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도 생산 차질이 완화되면서 반등하는 등 회복세를 유지했다. 투자도 반도체 산업에서 일시적으로 확대되면서 부진이 완화되었다. 경제 전체로 보면 내수 개선보다 수출 부진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1분기와 2분기에 전기 대비로 0.6%, 0.7% 성장했는데, 3분기에는 성장률이 0.3%로 하락했다.

우리 경제도 전 세계적인 고물가 기조를 피하지 못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까지 높아지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상회했다. 고물가에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입물가가 더 크게 오르는 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내외로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변동성이 작고 지속성이 높은 근원 소비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아직 정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물가상승세가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도 물가상승세를 제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함에 따라 시장금리가



긴축 정책 펼치는 불안정한 금융 시장 2022년 12월 2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최종 금리를 3.5%로 내다보고 있지만 정책적 약속은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가계 부채와 기업부채가 모두 대폭 증가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부채가 많은 국면에서는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이 빠르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경기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 금융 시장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경색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그나마 대외 건전성이 유지되고 자본 유출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점은 다행이다.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아

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던 급격한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으나, 외화자금 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 2022년의 경제 상황을 요약하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민간소비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다.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이제 2023년 한국 경제를 전망해보자. 앞서 설명했듯이 2023년 글로벌 경기의 흐름은 물가 안정을 위한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물가가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경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파르게 진행된 기준 금리 인상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인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2023년 경제에 대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2011~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평균 3.5%였는데, OECD의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에 불과하다. 2023년의 글로벌 경기는 2022년 하반기보다도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 차질의 위험이 높다. 중국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건실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가 상

승률과 정책금리 경로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장도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대외 여건의 악화로 인해 2023년에 경기 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IMF(2%), KDI(1.8%), OECD(1.8%), 한국은행(1.7%), 정부(1.6%) 등 IMF를 제외하면 대부분 1%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하방 위험도 여전히 크다. 미국 Fed의 긴축 기조가 강해지면서 세계 경기가 더 둔화되거나,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국 경기가 부진해지는 경우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수 있다. 대내적으로도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투자가 더 부진해질 것이다.



수출

글로벌 수요 감소로 수출 증가율 감소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대외 여건 악화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물량 기준, 수출 증가율이 2022년 4.3%에서 2023년 1.6%로 하락할 전망이다. 2023년에는 각국의 해외여행 제한이 더욱 완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확대될 텐데, 이 부분을 제외한 상품수출은 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가격을 중심으로 수출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액 기준으로는 상품수출이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경기 둔화 국면 속 민간소비 일부 완화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에 밀접한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되면서 설비투자는 0.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주택 경기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축소되고, 건설 기업의 자금 사정도 악화되면서 0.2%의 미미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부진했던 상황이 아직까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3.1%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경상수지

이례적인 수준으로 흑자 폭 축소

경상수지는 2023년 160억 달러로 흑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흑자 폭이 줄었다면, 2023년에는 대외 여건이 악화되어 수출이 물량 측면에서 줄어드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격도 하락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2015~2019년에 연평균 경상수지 흑자가 830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2022~2023년의 경상수지 흑자 폭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물가

물가안정목표 2%를 큰 폭으로 상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에서 2023년 3.2%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평균 배럴당 98달러 정도인데, 2023년에는 84달러 정도로 낮아지면서 수입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둔화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2023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한국 경제 전망



국내총생산

1.8%



민간소비

3.1%



설비투자

0.7%



건설투자

0.2%



수출

1.6%



소비자물가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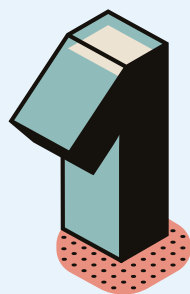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KDI 경제 전망,
2022.11월



민병운 (주)테미스코프 리서치 앤 컨설팅 대표이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겸임교수와 서강 트렌드 사이언스 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 <라:티핑 포인트> 등이 있다.

2023년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열정 소비가 온다

전문가들은 2023년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공포의 시대,
새로운 도전을 회피한다는 의미인
'네오포비아(Neophobia)'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2023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낸 해가 될 것이고,
3년 만에 마스크를 벗어 던질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억눌렸던 새로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높아지는
'네오�필리아(Neophilia)'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세대 구분 없는 '열정 소비'의 등장

새로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네오�필리아 시대는 사람들의 열정 소비에 불을 지필 것이다. 기본적으로 열정 소비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내가 가진 특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소비 생태

계를 뜻한다. 이전에는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이 학교나 학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마스터클래스 Masterclass, 코세라 Coursera, 유데미 Udemey, 클래스101, 탈잉 등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이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 기술을 수익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열정 소비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즉, 연령대를 뛰어넘어 디지털을 활용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 외에 행동적으로는 실외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여행과 스포츠를 즐기고,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사서 고생하는 여행자 호모 비아토르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되면서 여행 수요가 많아지고 여행과 열정 소비가 더해지면 색다른 트렌드가 생긴다.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곳들을 누비고 싶고, 기존 여행 경험에서 벗어나 모험을 추구하고 싶어하며, 현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썸트렌드 소셜 빅데이터에서 '배낭여행'에 대한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2022년 9월 이후 언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유럽의 바이웨이 트래블 Byway Travel은 사람들에게 '그 위를 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여행함으로써 세상을 발견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일본 JR 큐슈는 오지 섬으로 가는 관광열차를 신설했고,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기차여행이 부활하고 있다.



모험을 즐기는 여행의 맛 여행 업계에서는 2023년 여행 테마는 자유롭게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 생활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집에서 배우는 가족 공예

사람들은 코로나19로 3년간 집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온라인에서의 학습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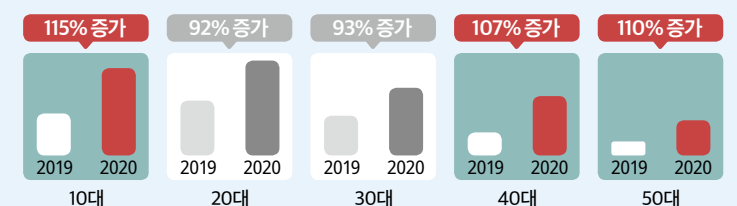
온라인 교육보다

취미 클래스 시장에 주목

최근 3년간 집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온라인은 업무의 공간과 학습의 시간을 제공했다. 일상을 보내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온라인이 대신해 왔던 것이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보니 사람들은 온라인에서의 학습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여유 시간에 취미 하나쯤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즉, 사람들의 학습 환경이 온라인 교육에서 취미 클래스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뱅크샐러드 데이터 리포트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클래스101, 탈잉, 패스트캠퍼스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이용자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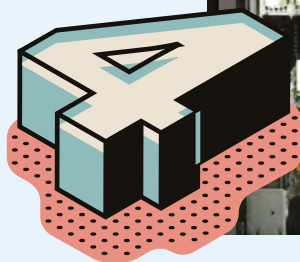
디지털 콘텐츠 연령별 결제 건수 증감 비교



자료:뱅크샐러드 데이터 리포트

무인 창업 시대

디지털을 활용한 무인 창업이 대세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진 디지털 시니어의 창업이 더해진 결과로 카페, 디저트, 편의점 등 업종이 다양하다.



직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직업을 갖는 시대

열정 소비에서는 생산적인 활동도 일어난다. 창업이 그것이다. 매일경제와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년간 전체 창업은 감소했지만 20대와 60대의 창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20대와 60대 창업이 동시에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퇴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제활동 방식의 등장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우선 열정 소비의 창업은 그 방식이 좀 다르다. 디지털을 활용한 '무인 창업'이 대세다. 직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업으로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무인 창업을 선택하거나 이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진 디지털 시니어의 무인 창업이 더해진 결과

다. 이는 카페, 디저트, 편의점, 사진관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열정 소비의 창업은 단순히 무인 매장을 통한 부업에 그치지 않는다. 젊은 연령층은 고연령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고연령층은 디지털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그 플랫폼 안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세컨드투모로우는 50대 이상의 경험 자산을 콘텐츠로 만들고 필요한 곳에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컨드투모로우 콘텐츠는 지역 활성화와 로컬 여행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니어 이커머스 플랫폼 그레이스케일은 시니어 소비의 온라인화를 추구해 다양한 시니어 제품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판매하고 있다. 더 뉴 그레이는 시니어 패션 컨설팅과 메이크오버를 제공한다.



열정 소비는 기존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을 창출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시대'를 보면 다양한 열정 소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연령대, 특히 10대, 40대, 50대에서 10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취미 클래스와 그런 클래스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이책을 즐기던 젊은 연령층과 틱톡, 라이브 커머스를 즐기던 고연령층까지 모두 기존 고객과 다른 신규 고객의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

사실 최근 3년간 많은 업계에서 마케팅을 할 때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왔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을 보수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존 고객 관리에 더 집중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각 업계에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 열정 소비를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주목할 때가 왔다.

열정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여행, 스포츠케이선의 등장

또 다른 열정 소비 여행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스포츠케이선(Sportscation)이다. 최근 3년간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스포츠가 결합된 테마 여행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여행 업계는 스포츠케이선을 그동안 집에만 머물면서 억눌렀던 스트레스와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호기심이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다. 스포츠케이선 트렌드에 따라 인터파크투어는 최근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꿈 사이클링'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을 통해 꿈에서 열리는 국제 사이클링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고, 꼭 대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전거를 통해 꿈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풋볼리스트는 '진짜 유럽축구 배낭여행'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는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부터 런던, 맨체스터 등에서 열리는 빅 매치를 직접 보러 떠나는 여행이다. 그리고 경기가 없는 날에는 주요 명문 구단의 홈 구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있다. 모든 일정에는 풋볼리스트 축구 전문가가 동행해 스포츠에 지식 콘텐츠를 결합했다.



스포츠와 테마의 효율적인 결합

스포츠케이선 트렌드에 따라 여행사에서는 다양한 테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풋볼리스트는 영국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빅 매치를 직접 보러 떠나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전 세계 무인계산대 시장 전망

2016년
25억 달러
(약 2조 8,000억 원)

2022년
46억 달러
(약 5조 2,000억 원)

자료마켓앤마켓



NFT, 메타버스 그리고 ESG

지난 팬데믹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듯 '디지털'은 위기 탈출의 해법처럼 여겨졌다. 다만 누구나 디지털 혁신을 외치지만 디지털만 붙인다고 해서 마법의 해결책이 될 순 없다. 한때 흘러가는 유행이 아닌 2023년 변화의 물결이 될 디지털 트렌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CES 2023에서 선보이는 NFT 신발
LG전자는 1월 열린 CES 2023에 NFT 기술로 만든 디지털 가상 신발 '몬스터 슈즈'를 공개했다.

디지털 자산의 미래 'NFT'

앞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분야는 뭘까? 단언컨대 메타버스다. NFT와 메타버스는 하나의 세트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통해 형성된 모든 가상세계와 현실이 결합된 새로운 세상인데,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람의 모든 활동이 이뤄질 것이다. 메타버스

가 발전할수록 현실과 가상을 연결할 경제활동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경제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선 화폐가 필수적이다. 메타버스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축될 경우 경제활동의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NFT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데 NFT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NFT로 만들어 발행함으로써 거래나 소유권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하면서 현실세계와 유사한 경제활동을 펼치는 셈이다.

탈중앙화를 꿈꾸는 미래형 인터넷 '웹 3.0'

웹 3.0은 202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메타버스와 혼합되어 관련 시장이 크게 확장·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웹 3.0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세계 경제 생태계에서 거래 수단으로 NFT나 디지털 토큰의 역할도 증가할 것이다. 웹 3.0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데이터 소유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기존 데이터 구조의 해체다.

웹 1.0은 1990~2000년으로 웹페이지 제작자가 콘텐츠를 작성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정보를 얻고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제한적이고 정적인 형태였다. 2000년대 들어서서 개방과 참여, 공유를 강조하는 웹 2.0이 등장했다. 웹 2.0에선 기존 웹 1.0이 갖고 있던 읽기 기능에 쓰기 기능이 더해

졌다.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방식인데, 웹 2.0의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블로그, 지식백과 등을 포함해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틱톡, 플리커 등이 있다. 그러나 웹 2.0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소위 빅테크라 일컬어지는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에 의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반발과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웹 3.0이다. 웹 3.0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탈중앙화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웹 3.0에서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소유하는 등 데이터 주권이 개인 이용자에게 주어진다. 더불어 사용과 개발 기여도에 따라 자체 토큰 배분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고, 해당 프로토콜에 대한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사용자들의 참여와 가치 분배가 실현될 수 있는 구조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의 시대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강조되면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인 'RE100' 선언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나이키, 이케아, BMW, 코카콜라 같은 기업뿐 아니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참여를 알리고 있다. 애플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달성했다. 애플은 사람들이 그들을 떠올릴 때,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브랜딩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애플의 협력사에도 영향을 줬고, 애플에 발맞춰 100%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한다고 밝힌 협력사가 상당수다. 애플을 필두로

대형 ICT 기업들이 탄소중립 등 ESG경영에 공들이는 이유는 뭘까? 빅테크 기업들의 ESG 리스크는 전통 제조업에 비해 오히려 크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나 생산설비가동 등으로 인해 전력 사용이 많고, 공급사슬이 복잡해 인권이나 환경 이슈에 얽히기 쉬우며, 탄소 배출 관련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는 빅테크 기업이 직면한 주요 ESG 리스크 요인 중 하나다.

빅테크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앞으로 첨단 기술과 자금력 투입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자원 채취-생산-소비-폐기 중심의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생산과 소비 후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순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들의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노력 데이터센터, 생산설비가동 등으로 인해 전력 사용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전통 제조업에 비해 ESG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탄소중립 등 ESG경영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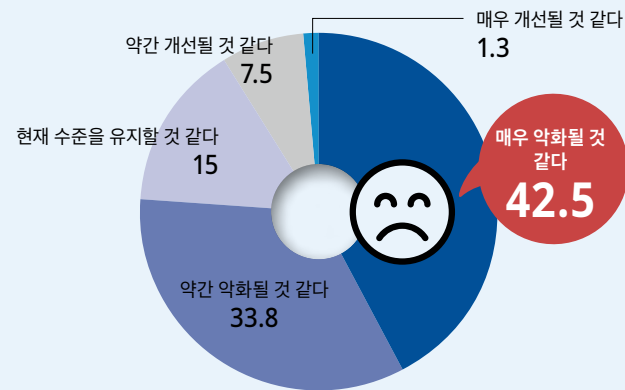
개인 데이터 소유를 지향하는 웹 3.0
소수의 대기업이 웹상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고 이익을 소유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웹 3.0이 등장했다.

2023년 중소기업 경영 환경 진단

<중소기업 CEO 리포트>는 2023년을 맞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경제 전망과 경영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복합위기의 해였던 2022년을 지낸 중소기업에 2023년은 어떤 해로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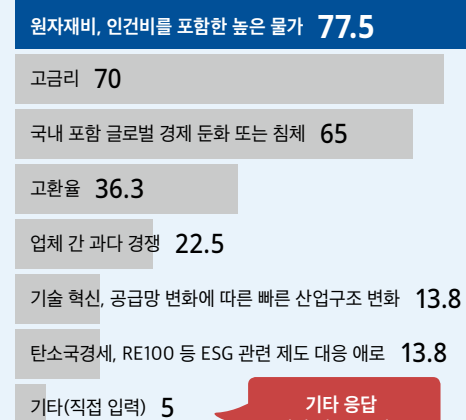
Q1.

2023년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Q2.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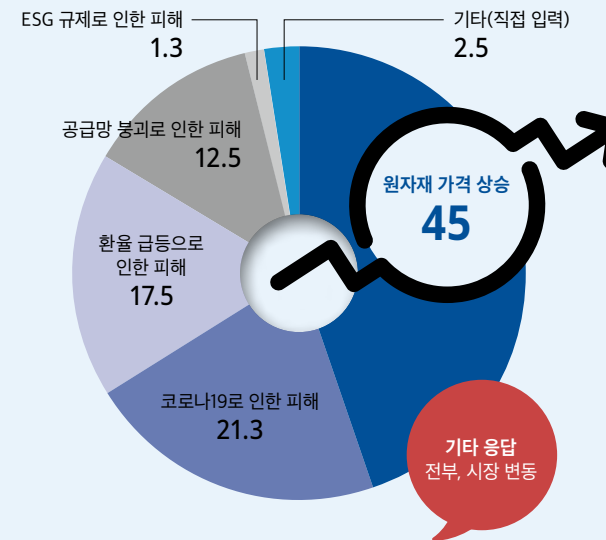
기타 응답
정치 리스크, 인구 감소 및 정부 노동정책 개혁에 따른 인력난, 노조의 파업 등

2023년 경기 전망에 대해 42.5%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앞으로 경기가 ‘매우 악화될 것 같다’고 답해 상당수의 중소기업 중사자들이 2022년의 경영위기가 2023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는 ‘원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높은 물가’가 77.5%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글로벌 경제 둔화 및 침체’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은 경제 요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은 ‘비용 절감’이 78.8%로 가장 많은 응답 수를 차지했다. 또한 성장을 위한 조직 관리 방안으로 가장 많은 기업에서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를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가장 많은 수가 ‘저금리 자금 지원’이라 응답했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와 ‘공급망 대응을 위한 원자재 조달과 판로 개척 지원’도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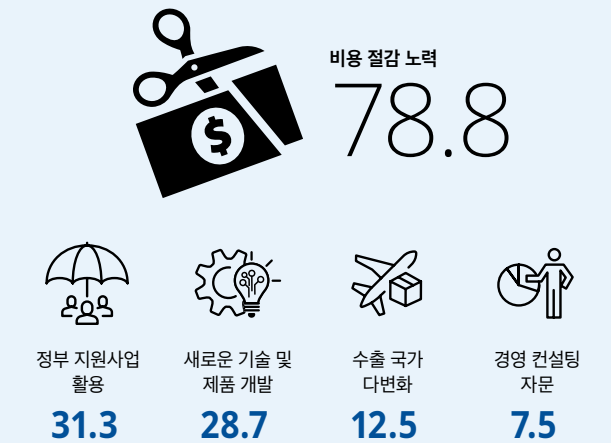
Q3.

지난 2022년 겪은 주요 애로 사항은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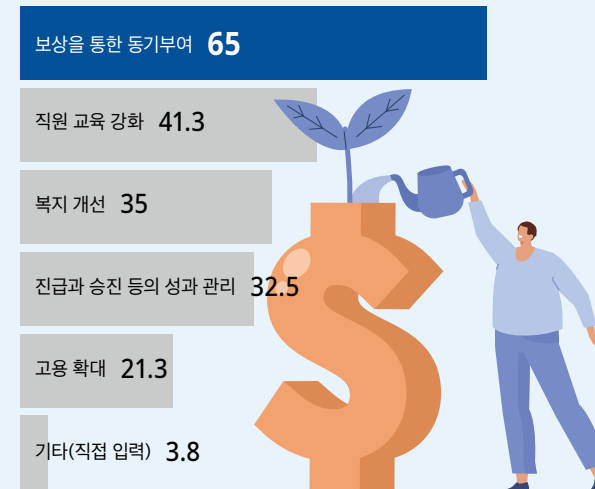
Q4.

기업의 경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복수 응답)



Q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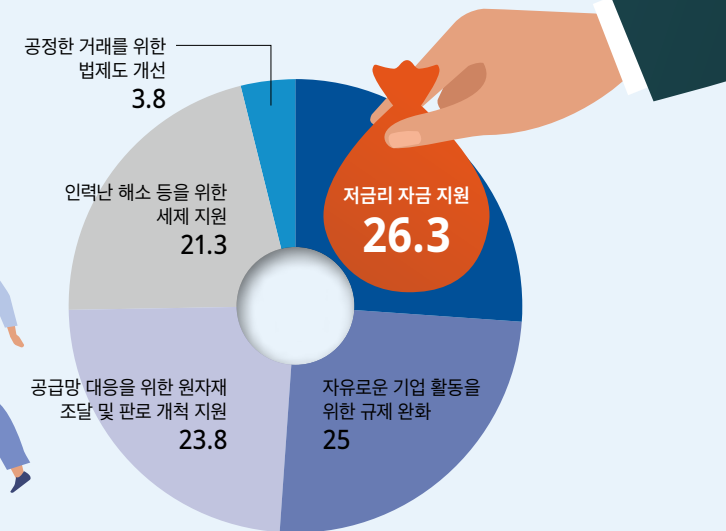
기업 성장을 위한 조직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단위 % 주 중소기업 300개 기업 대상, 2022. 12. 19~20일 자료 오픈서베이

Q6.

2023년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에스에스오트론(주) 도전을 성취로 일궈내는 **혁자생존** 革者生存

인천에 근거지를 두고 반도체 자동화 장비 분야에서 고유의 기술 경쟁력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크게 넓혀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 올해로 창립 18년차를 맞은 에스에스오트론이다. 신계철 에스에스오트론 대표는 특유의 도전정신과 추진력을 앞세워 국내 굴지의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다.

•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늘어선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편에 자리 잡은 에스에스오트론 사옥. 1층 입구까지 마중을 나온 신계철 대표는 서글서글한 눈매에 힘이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다. 수더분해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거침없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3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에도 그런 그의 성격과 태도가 그대로 묻어 나왔다. 각종 사진과 그림, 인천시 개발계획도, 달력 등이 걸린 집무실 벽면에는 손글씨로 쓴 글귀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고통을 축제로', '시련은 있어도 절대 포기는 없다', '스마트 혁신', '담대함이 행운의 여신을 부른다'...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들춰보며 혹은 책을 읽으며 좋은 글귀를 발견할 때마다 이를 외우고 메모하면서 마음을 다

잡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다.

신 대표 특유의 초공정 마인드와 도전정신이 잘 드러나는 글귀들 사이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혁자생존'의 마인드가 엿보인다. 인터뷰 내내 그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을 본다”, “안 되면 되게 하고, 될 때까지 한다”는 식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다.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만류하는 일이라도 기어코 도전해 성취해내는 것이 그의 경영 방식이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님에게 혁신가 기질과 초공정 마인드를 물려받은 덕분이죠. 한번 생각이 꽃이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열정과 투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계철
에스에스오트론(주) 대표



도전정신으로 이뤄낸 성장 신계철 대표는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낸다는 추진력으로 사업을 운영해 에스에스오트론을 국내 굴지의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만들어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생소한 설비였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심정으로
PCB 후공정 장비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말렸지만 직원들을 독려해
3억5,000만 원짜리 설비 개발을
6개월 만에 성공시켰죠.

사활을 건 반도체 장비 신기술 개발

2006년부터 신 대표가 독심으로 일궈 온 에스에스오트론은 반도체 장비 제조 및 자동화 라인 구축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주로 반도체 부품 제조·가공·검사 등에 쓰이는 장비를 취급하고 있으며, 반도체 조립 라인에 필

요한 반도체 지그 로더·언로더, 반도체 패키징 기판(Printed Circuit Board-PCB)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픽 앤 플레이스를 비롯해 반도체용 트림폼 설비, 레이저 장비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 높고 낮은 가격의 장비를 개발·납품하면서 두각을 드러내 왔지만 에스에스오트론이 시작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창업 전 18년간 근무해 온 반도체 기업이 외환 위기 직전 문을 닫자 신 대표는 재충전을 위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다니던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사업 구상을 위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를 몰고 독일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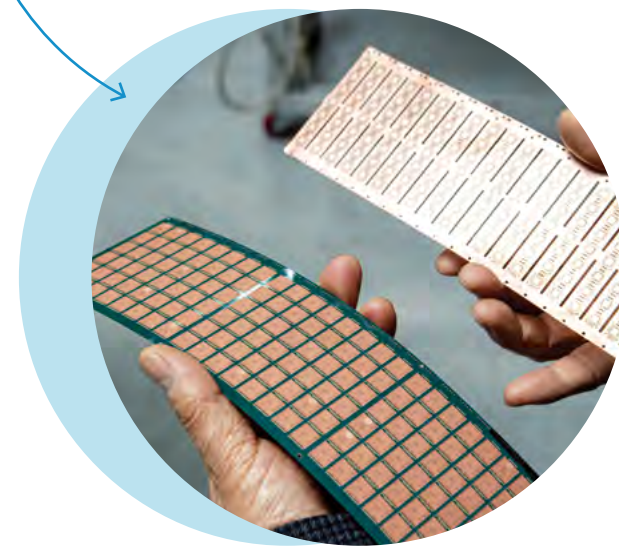
다 퍼뜩 든 생각이 내가 해 오던 게 반도체 장비이고 그쪽에 비전도 있는데 못할 게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귀국해서 마이너스 통장 2,500만 원으로 사업에 착수했죠.”

하지만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장비 산업의 특성상 초기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순간에도 신 대표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긍정 마인드와 배짱, 그동안 쌓아 온 인맥을 총동원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반도체 장비 산업 분야의 경우 철저히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술 개발에 매달렸다. 그의 표현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PCB 후공정 장비 개발에 전념해야 했다. 이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패키징 재료이자 구조 재료인 반도체 기판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반도체 기판은 사용되는 원재료 등에 따라 리드프레임과 PCB로 나뉘는데, 갈수록 PCB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이를 다룰 수 있는 관련 장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국내에 이러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곳은 없었다. 신 대표는 이를 개발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반도체 부품 생산 기업 측의 제안을 받고 도전 의식을 불태웠다. 직원들은 난색을 표하며 설비 개발을 만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결국 2008년 11월 ‘칩 스케일 패키지 지그 분리 시스템’의 특허 등록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

반도체 칩이 장착되는 PCB (왼쪽)와 리드프레임(오른쪽)은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 재료로 쓰이며 에스에스오트론은 후공정 장비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에 성공하면서 사업화 기반을 마련했고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예전에는 PCB에 커버를 얹는 공정을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 했어요. 쉽게 말해 그러한 공정을 자동화한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굉장히 생소한 설비였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심정으로 PCB 후공정 장비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말렸지만 직원들을 독려해 3억5,000만 원짜리 설비 개발을 6개월 만에 성공시켰죠.”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꿈꾸며

에스에스오트론의 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최근에도 12억 원 규모의 풀오트 트림폼 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필리핀의 한 기업에 납품했다. 트림폼 시스템은 반도체 소자를 개별 단위로 잘라내거나 손질하는 데 사용하

는 장비다. 지난해 5월 전 공정을 자동화한 설비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패키지 칩 아웃, 스크래치, 이물질 등 불량 검사와 측면 검사를 겸하는 반도체용 링 프레임 투 트레이 & 튜브 픽 앤 플레이스 검사 장비를 개발 완료해 납품을 준비 중이다.

에스에스오트론이 보유한 특허는 20개가 넘는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영입한 결과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2020년 238억 원에서 2021년 273억 원, 2022년 280억 원(예상치)으로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말까지 반도체 불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고객사



에스에스오트론 주요 특허

특허 제10-1697119호
반도체소자의 비전 검사 장치

특허 제10-1829277호
반도체 패키지 프레스 장치

특허 제10-2133881호
반도체 패키징 트레이 및
지그의 자동 교체 장치

특허 제10-2194786호
반도체 패키지의
PCB 자동 소분 장치

특허 제10-2218961호
PCB 제조용
스텐실 검사 장치

의 해외 투자 및 신규 투자 수요에 따라 주가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올해 330억 원의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4% 증가한 4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이룬 요인으로는 에스에스오트론만의 기술 경쟁력과 더불어 철저한 납기 준수, 타사 대비 낮은 가격이 꼽힌다. 특히 신 대표는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객 관리, 설계, 장비 개발, 구매, 가공 등 업무 전반의 일체화·표준화·수치화에 주력했고 이는 원가 절감과 업무 효율 증대로 이어졌다.

올해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생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본사 사옥을 청라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반도체 및 2차전지 배터리 제조 공정에 쓰이는 3차원^{3D} 비전 검사 장비, 3D 커팅 장비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청라 시대를 앞두고 신 대표는 사옥 이전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 장비 산업은 최소 10년 정도는 지속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직원들이 합심한 결과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청라 이전을 계기 삼아 새로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코스닥 상장과 더불어 추후 그룹화까지 이루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독자적인 특허 기술에 빛나는 자동화 설비 에스에스오트론은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반도체 칩을 기판 위에 옮기는 픽 앤 플레이스 설비 등 다양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History

2006. 01
삼성오트론 설립

2006. 07.
ISO 9001:2008 & KS Q ISO
2001:2009 인증 획득

2008. 12
주식회사 삼성오트론으로
법인 전환

2009. 0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2009. 02
인천시 부평구청
중소기업인상 경영 부문 수상

2010. 05
에스에스오트론(주)으로
사명 변경

2010. 0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우수중소기업인상
기술 부문 표창

2012. 0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13. 05
제3079호 표창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013. 12
제50회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4. 12
제51회 무역의 날
삼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STRENGTH

에스에스오트론의 4가지 핵심 경쟁력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25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엔지니어들을 설비 제작에 투입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기반으로 신기술 및 장비 개발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욕 높이는 성과급

기업의 성장은 곧 직원들의 사기에 달려 있기에 우수 사원을 선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말이 되면 업무 성과에 따라 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한다.



전 공정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객 관리, 설계, 장비 개발, 구매, 가공 등 업무 전반을 일체화·표준화·수치화했고 이는 원가 절감과 업무 효율 증대로 이어졌다.



적극적인 인재 영입

기업의 성패가 인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경영 철학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 확장을 위해 기술자들도 지속적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창업
2006년



본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청라 이전 예정)



주력 제품
반도체
자동화 장비



수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포르투갈 등



인원
65명



2022년 매출
280억 원
(예상치)



2023년 매출 목표
330억 원



글로벌 제품 탄소 규제와 2023년 중소기업의 과제

2023년에 들어서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해 기업의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의무화 등 기업에 대한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공급망에 연계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 사실 우리 경제계는 최근 무더위나 한파와 같은 물리적 변화 말고도, 기후 위기로 인한 또 다른 변화를 맞아 긴장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 신차 판매 금지 결의 2022년 6월 열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회의 모습.

변화다. 각국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에 기후변화라는 요소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변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과 판매, 유통 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 기준도 변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는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때로는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해외 생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도입은 우리 기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RI} 수석연구위원
CDP한국위원회 수석연구위원,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녹색금융 국제표준화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업이 이러한 변화를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IRA는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최근 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기업의 스코프3 배출량(공급망을 포함한 가치사슬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스코프 3를 포함한 탄소 중립 목표 수립 요구 등 제품 및 공급망을 통한 직간접적인 탄소 규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EU의 CBAM 도입

2022년 12월 18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는 CBAM 최종안에 합의했다. CBAM 또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 또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에 1만 원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A국가가, 해당 상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B국가로부터 동일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비용 1만 원을 관세로 징수하는 것이다.

CBAM의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6개로, 해당 제품의 수입 기업은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CBAM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2025년까지 배출량 신고의무만 있는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비

용이 부과될 계획이다. 과도기 이후,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량 포함 여부 및 2030년까지 EU 배출권거래제^{EU-ETS} 대상 전 품목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가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인증서 가격은 EU-ETS의 탄소 가격과 연동된다. 최근 EU가 2030년 감축 목표를 19% 상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ETS 탄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톤당 80~85유로 수준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100유로 정도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IRA, 한국과 광범위하게 협의 진행
2022년 12월 14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이 IRA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
2022년 10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CBAM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EU CBAM은 표면적으로는 수입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수입 기업에 부과하고 있으나, 생산 기업 또는 판매 기업에 의무이행 비용의 전체가 전가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를 위해, EU가 수입 기업을 통해 해외 수출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는 EU 역내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EU가 실질적으로 해외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탄소 비용의 최대치는 동종 업종의 EU 기업이 지불하는 금액에서 해외 수출 기업의 생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CBAM은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EU 수출 제품에 대한 추가 비용을 증가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지 국가의 탄소 규제를 강화시켜 EU 수출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한 탄소비

용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생산지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자국 기업이 EU에 탄소비용을 납부

하는 것보다는 자국 규제를 강화해 자국에 탄소비용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스코프 3 관련 제도화 동향과 영향

국내 기업, 특히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연계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 관련 제도는 비단 EU의 CBAM만이 아니다.

스코프 3 배출량, 즉 공급망과 제품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의 무가 늘어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대한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2월 기준, 전 세계 7,200개 이상의 기업이 유엔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제로^{Race to Zero}'라는 캠페인에 참여해 넷제로 목표를 선언했다. 이들 기업은 스코프 3 배출량을 포함한 넷제로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50년 이전 넷제로 달성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스코프 3를 포함한 기후정보공시 의무화도 국내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SG 금융의 확산과 함께 기업의 ESG 정보, 그 가운데서도 기후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EU 및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등에서 기업의 기후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 중인데, 스코프 3 배출량 공시도 함께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시 대상 기업이 수

만 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향후 공급망을 통해 고객사로부터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제공과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평균 전력배출계수, 즉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외 경쟁국보다 2~3배가량 높다. 즉, 기업이 제품 생산에 동일한 양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한국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외 기업에 비해 2~3배 높다. 이는 저탄소 경제에서 한국 기업의 출발점이 이미 한걸음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기후변화는 이제 환경 이슈임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제 이슈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급망 배출량 관리는 기후위기 시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급망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과 대·중소기업 등 국내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체계 수립

우선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찍이 배출권거래제에 편입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시작한 대기업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한 국내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관리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규제나 제도는 대부분 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는 제품 단위의 배출량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산설비가 위치한 모든 지역의 배출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품별 전 과정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 구축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스코프 3 관련 제도는 모두 제품별 배출량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생산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정보와 감축을 요구한다. 고객사의 배출량 정보 및 감축 요구도 자사에 납품하는 제품에 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출 지역 및 고객사의 요구 수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품별 전 과정 배출량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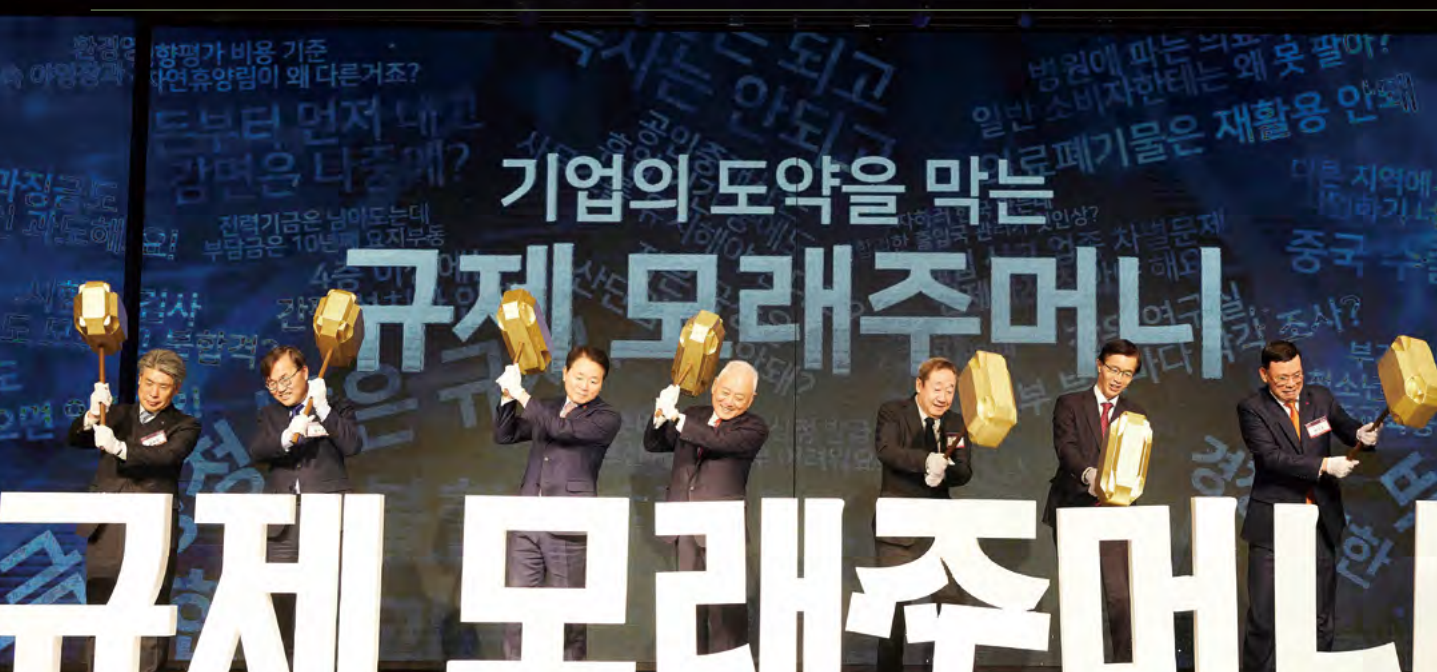


탄소 감축 전략과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의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 탄소 감축이다. 그리고 최근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의 핵심 전략은 산업, 물류 등 사회 전반의 전기화와 재생에너지를 통한 무탄소 전기 생산이다. 업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유다.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목표 지난 2022년 12월 전 세계 7,200개 이상의 기업이 유엔에서 진행하는 '탄소중립 제로^{Race to Zero}'라는 캠페인에 참여해 넷제로 목표를 선언했다.



적극적 규제혁신과 애로 해소 다짐 행사에 참여한 주요 내빈들이 규제 모래주머니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규제 모래주머니 푼다

2022년 12월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이 개최되었다. 규제 및 애로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로 애써 온 기업들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로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지난 2022년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규제혁신에 앞장선 유공자 등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54명과 사회공헌, 지역 발전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21명 등 총 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혁신에 힘쓴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표창과 ‘망치 트로피’를 전수했다. 망치 트로피에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 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

개회사에서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통해 그간 규제혁신에 애써 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규제 해소와 혁신으로 기업이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함께 노력해서 중소기업 현장에 규제 망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종원 전 은행장은 “힘든 여건에서도 우리 경제가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산업의 중추인 중소기업인 분들과 규제혁신에 힘쓰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 좋은 중소기업상

2부에서는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의 총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신계철 에스에스오트론(주) 대표이사는 반도체 자동화 장비 분야에서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0여 개 지적재산권을 연구·개발^{R&D}에 적극 적용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참! 좋은 중소기업상’의 기술혁신 부문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볼트 제조 기업인 (주)대우볼트의 강희준 대표이사는 끊임없는 시설투자와 특수 볼트 개발로 해당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참! 좋은 중소기업상’ 사회공헌 부문 중소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샤휄플러스(주), (주)삼성케미칼,

스마트전자(주),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팜이십일, (주)하스, (주)티케이씨, (주)쿠팡스, (주)갤럭시코퍼레이션, (주)크린산업, (주)케이두레, (주)와이제이씨, (주)노바인터내셔널, 이엠코리아(주), (주)세양, (주)광진화학, (주)백광테크, 아워박스(주), 아세아도(주), 홍콩삼겹살이 참! 좋은 중소기업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박주봉 옴부즈만 등 주요 내빈들은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혁신과 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2022년 한 해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기에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며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드리며, 2023년에도 규제혁신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저부터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기업들 참! 좋은 중소기업상은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의 총 6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한국·베트남 상생의 파트너로 나아갈 미래를 약속하다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2022년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 경제협력포럼 2022 행사가 개최되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부행장은 이번 행사에 참가해 베트남의 혁신 기업 육성과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한·베 경제협력포럼 2022 특별 세션에 참여한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사진 맨 오른쪽) 조봉현 부행장은 이번 행사 특별 세션에서 '혁신 기업 육성과 정책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위대한 동행-미래 변영 100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한·베 경제협력포럼 2022’는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짠 씨 타잉 하노이 시장을 비롯한 양국의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한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연설과 토론이 진행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

베트남의 눈부신 성장과 원동력

특히 이번 행사에는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부행장이 특별 세션에 참석해 ‘혁신 기업 육성과 정책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경제 성장의 원동력과 미래 혁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조 부행장은 “베트남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21세기 가장 훌륭한 성장을 거둔 신흥국의 스타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과 성공적인 해외 투자 유치 및 교역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으며 “베트남에는 15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구가 70%에 달하며, 해외로부

터 유치하는 투자와 상품, 서비스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베트남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존해 있는 과제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 부행장은 낮은 생산성과 한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금융 시장 그리고 중소기업 지속 성장에 미흡한 생태계를 문제점으로 꼽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정책 금융기관이 부재한 것은 기술과 잠재력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혁신 기업 육성과 정책금융의 역할

조 부행장은 베트남의 경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적극적인 디지털 잠재력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5년 5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디지털 경제가 점차 베트남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혁신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부행장은 “베트남은 3년 이내에 창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젊은 세대가 64%에 달할 만큼 스타트업에 관심이 높은 나라”라며 “하노이나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정책 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의 다양한 역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조언
조 부행장은 IBK의 노하우와 성공 사례를 베트남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헤럴드경제



을 사례로 소개했다. 경제위기 시 대출 공급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IBK창공(創工)을 통해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 플랫폼 IBK박스(BOX)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전환을 위해 ESG대출, 녹색투자, ESG 컨설팅 및 가이드북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부행장은 “IBK 사례에서처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안전망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금융은 베트남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히며 “IBK가 축적한 노하우와 성공 사례들을 베트남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했다.



구로 8기

(주)블럭나인

손영환 대표

자동권선 기술 분야의 강자

블럭나인은 권선 분야 자동화의 세계 최고를 자부한다. 모든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 인덕터^{Inductor}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현 시장에 온전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Questions

01. 블럭나인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기존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03. 트로이달 코일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04. 향후 계획이나 전망은?

Answers

01. 모든 산업군에 다양하게 쓰이는 전기 장치인 인덕터는 부품 산업의 필수 제품이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스마트 네트워크의 증가 등으로 인덕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탈탄소화 정책,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으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도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럭나인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자 국내 유일한 트로이달 코일^{Troidal Coils} 권선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 분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02. 트로이달 권선, 트로이달 코일 인덕터는 전기가 들어갈 때 고전류, 저전류 등 여러 가지 노이즈로부터 모든 회로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자파 방지 장치다. 이는 전기를 쓰는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 중 하나로 기존에도 다양한 대체품이 있었지만 전기차처럼 고전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트로이달이라는 강전을 이용한 아날로그 방식의 코일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03. 트로이달 기술은 오래전 개발되었지만 최근까지 수작업을 통해 생산하고 있었으며 블럭나인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공정을 무인 자동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체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해당 권선 기술에 대한 특허 및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트로이달 전문 권선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04. 블럭나인의 모토는 ‘세상에 가치를 남기는 기업’이다. 상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및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공정 자동화의 미래 전망을 파악해 한발 앞선 솔루션을 제안할 것이며 우리 기술, 우리만의 자동화로 따뜻한 가치를 남기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블럭나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트로이달 코일의 모든 공정을
무인 자동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체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

IBK창공^{창공}은 ‘창공^{창공}을 통해 창공^{창공}으로 비상하라’는 의미를 가진 ‘창업^{창업}·공장^{공장}’의 줄임말로, IBK기업은행이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마포 9기

(주)어라운드블루

최준영 대표

천연의 자연 부산물로
미래를 바꾸는 기업

어라운드블루는 자연에서 출발해 안전하게 사용 기간을 마친 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무독성 친환경 바이오 매스 신소재를 개발·생산·제품화하고 있다.



Questions

01. 바이오 신소재 CLC의 개발 배경은 무엇인가?
02. 해당 시장의 규모는 어떠한가?
03.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
04. 향후 계획이나 전망은?

Answers

01. 바이오 매스 신소재 CLC는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바이오 매스 소재 개발에 주력해 왔고, 그 결과 나무 가루, 쌀 껍질, 옥수수 가루, 커피박, 맥주 찌꺼기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바이오 매스의 분자 표면을 공유 결합하는 기술을 통해 바이오 매스 신소재인 CLC를 개발했다.

02.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환경부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재생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것을 촉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최초로 제정했다. 현재까지 강제 규정은 거의 없지만 2026년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바이오 매스 소재 시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03. 어라운드블루만의 핵심 기술은 세계 최초의 분자 표면 공유 결합 기술로 미국의 정부기관인 농림부^{USDA}로부터 자연탄소 100%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부터 8대 중금속 불검출 성적서를 인증받았으며,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성적서, 프탈레이트 불검출 성적서, 내열성 시험 성적서(120도)를 인증 받아 친환경 무독성 소재임을 증명했다.

04. 세계 1위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인 코스맥스^{COSMAX}와 2022년 8월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천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위치한 자사 연구·개발^{R&D}센터와 제휴 중인 파트너사를 통해 CLC의 기능성을 증명하고 추후 유럽 중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지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어라운드블루는 자연에서 얻은
천연 원료를 별도의
정제, 추출, 중합 과정 없이
특허 기술로 CLC 생산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

부산 7기

(주)오티아이코리아

박수진 대표

전염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세상

오티아이코리아는 전염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소독·멸균제인 이산화염소를 사용해 의료·제약, 농축산 등 다양한 산업에 토털 멸균 솔루션을 제공한다.



Questions

01. 이산화염소가스 멸균기의 개발 배경은 무엇인가?
02. 해당 시장의 규모는 어떠한가?
03.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
04. 향후 계획이나 전망은?

미 FDA에서 EO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이산화염소가스를 제시함에 따라 이산화염소가스 멸균기가 새로운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swers

01. 대학생활과 실험실 그리고 세포치료제 관련 업무를 통해 감염 방지의 중요성을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보다 간단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감염 방지 방법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중 손상이 적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이산화염소가스를 이용한 저온멸균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02. 멸균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국내 3.6%, 글로벌 6.7%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감염 관리 서비스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전염성 미생물에 의한 전 세계적인 감염병 관련 이슈와 병원 내 감염 증가, 제약 및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제균으로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03. 저온멸균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EO가스^{Ethylene Oxide Gas-산화에틸렌가스}는 1급 발암물질 및 환경오염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6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EO가스 배출시설 제한법'이 통과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EO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이산화염소가스를 제시함에 따라 이산화염소가스 멸균기가 새로운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용으로 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오티아이코리아의 제품뿐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연락을 받고 있어 오티아이코리아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04. 앞으로 내시경용 멸균기, 치료 보조를 통한 감염 예방 등 시장 요구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개발·출시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전 2기

(주)필로포스

정중호 대표

미래를 밝히는
혁신적인 광학 기술

필로포스는 공간섭단층촬영^{OCT}이라는 망막정밀진단 기기를 대중화해 전 세계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해 시력 손상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Questions

01. OCT의 개발 배경은 무엇인가?
02. OCT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03.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
04. 향후 계획이나 전망은?

필로포스가 만드는 저가화된 소형 OCT는 기존 고가의 대형 제품이 다수를 이뤘던 안과 기기 시장 규모 자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Answers

01.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는 1991년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후지모토 교수의 연구실에서 맨 처음 시작되어 안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소형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OCT를 소형화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소형 OCT에 맞는 핵심 부품이 없었다. 필로포스는 처음부터 소형 OCT 플랫폼을 상정하고 그에 맞는 핵심 부품들부터 차근차근 개발해 전체 시스템을 완성했다.
02. 전통적인 플랫폼에 전기차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던 기존 자동차 제조 기업들과는 달리 테슬라는 전기차만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에서 시작해 전자제어장치를 3개로 대폭 줄이는 기술혁신을 이룬 것과 유사하다. 필로포스가 개발한 초소형 분광기 모듈은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가 등록되었고, 세계 최초의 무선 소형 OCT 기기는 국내와 일본에서 특허를 따냈다.
03. 안과에서는 여러 망막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OCT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로포스의 휴대용 안과 OCT 기기는 5kg 정도의 무게로 휴대가 가능하고, PC와 모니터까지 모든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전원만 켜면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다. 여기에 영상 품질은 기존 고가의 OCT에 필적할 만하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04. OCT의 응용 분야는 안과뿐만 아니라 심혈관, 소화기내과, 피부, 산업용 등 매우 다양하다. 필로포스의 기반 기술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 기술의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2023년 초 안과용 제품의 국내 출시 이후 피부진단용이나 산업용으로 출시할 계획이며, 이미 피부진단용으로는 국내 대기업과 기술검증^{Proof of Concept-PoC}을 위한 시제품을 개발하고 공동 연구 중이다. 

지도로 살펴보는 글로벌 이슈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이슈를 살펴본다.

“내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CNBC 방송이 2022년 12월 보도했다. 여행 시장조사 업체인 데스티네이션 어널리스트에 따르면 11월 조사에서 미국인들 가운데 31%가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해외 지역에 대한 검색이 55%였 다면서 해외여행이 2023년 3대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지역 에너지 위기가 2026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유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뒤 유럽은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여파가 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유럽 지역의 피해가 1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하면서 “세계 가스 가격 불안이 2026년까지 이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되고, 정부도 더 이상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기관 HSBC는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6%에서 0.5포인트 높은 8.1%로 상향 조정했다. 베트남은 2022년 3분기 13.6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른 경제 회복을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 관광 부문 활성화로 관련 산업 고용이 증가하면서 2022년 3분기(누적) 실업률이 2.35%로 감소했다.

최근 중국 16개 주요 도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중국에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를 묻는 말에 58.4%가 러시아라고 응답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라는 응답이 각각 45.9%와 39.7%로 뒤를 이었고, 중·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등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2022년 55.6%에서 58.4%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2023년 예산이 114조3,812억 엔으로 11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사회보장과 국채 원리금 상환 등 고정비여서 성장 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탈석탄화 지원 예산은 5,000억 엔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진흥비는 1조3,942억 엔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20년간 미국과 영국 정부의 수입이 각각 2.6배, 2.3배 늘어나는 동안 일본 정부는 1.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 경제 살릴까?

중국의 봉쇄조치 완화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관광 및 공장 재가동 등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유가 상승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 2023년의 중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자.



리오프닝으로 소비 기대되는 중국 중국이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면서 그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타격을 입었던 면세·화장품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7일 중국이 코로나19 봉쇄조치 전면 완화를 실행한 지 꽤 지났지만 우리가 본 것은 중국 경제의 전면적인 소비 회복이 아니다. 쇼핑물은 텅 비어 있고, 공장에는 결근이 많으며, 학교에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식당들은 손님이 없는 채 감염자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약국과 병원에만 사람들이 넘쳐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일 뿐이다. 감염병의 전파 원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입, 확산, 상승과 절정, 하락의 5단계를 거친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1선 도시와 인구밀집

지역은 유행 확산의 높은 발병기에 접어든 반면에 3·4선 도시 및 농촌 지역은 아직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지역들도 폭발 및 절정의 단계 진입은 시간문제다. 현재 각계각층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동안 중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염을 경험하고 신체에서 항원이 생성되어야만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2023 중국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

그러나 2023년 중국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 증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주민들은 코로나19 발생 3년 동안 많은 저축을 해 왔다. 현재 중국 본토 거주자의 저축예금은 약 12조5,000억 위안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5년 평균의 약 1.9배에 달한다. 해외 국가의 사례로 볼 때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주민 부분의 저축예금은 바로 소비로 전환하는 현상을 보였다. 2022년 3분기에 미국 주민의 저축률은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았고, 독일, 싱가포르, 한국 및 기타 경제권의 2022년 3분기 저축률도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또한 중국 본토 거주민들의 소비 성장률은 주민 이동을 반영하는 100개 도시의 정체 및 이동지연지수 추세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중국 각 지방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도 도시 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 소비 의향이 크게 개선되어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확대 정책과 통화정책 완화로 부동산 경제가 안정되고 소비 진작 정책을 크게 펼친다면 주민들의 고용과 소득이 개선되면서 소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우 낮은 기저지수 효과도 소비 증가율과 반등을 뜻한다. 2020~2021년 소비재 소매 총액은 2년 동안 평균 4% 증가해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성장률이 약 절반으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1%대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3년 연속 저성장은 2023년 소비 증가율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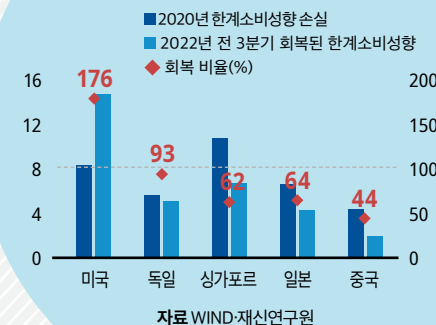
아직은 불안정한 중국의 한계소비성향

2023년 중국 주민 1인당 소비지출은 약 8~12%, 사회총소비액은 약 7~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를 일찍 시행한 대부분 국가의 2022년 회복 경로를 참고한 것으로, 2023년 중국 소비 증가율은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과 주민 한계소비성향^{MPC}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중국의 실질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매우 일치하며, 2025년 '현행 고소득 국가 표준 달성'과 2035년 GDP 총량 2배 증가 목표를 고려해 2023년 실질 GDP 증가율 목표는 약 5~5.5%(2023년 경제 성장 목표 5~5.5%)로 설정하고, 소득가격지수가

약 2~2.5%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23년 가처분소득 증가율 약 7~8%를 얻을 수 있다. 거주자의 한계소비성향의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 방역 통제가 점진적으로 자유화된 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주자의 소비지출 증가율을 약 7~8%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의 회복이 코로나19

발생 후 소비 증가율 반등의 중요한 원동력을 말한다. 그러나 각국의 한계소비성향 회복 정도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조기에 방역을 없애고 대규모 현금보조금을 실시한 미국, 유럽 지역 등의 한계소비성향 회복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1~3분기 미국의 한계소비성향은 코로나19 이전 동기 수준보다 높았고, 독일도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전 동기 수준 부근을 회복한 반면, 싱가포르, 일본의 2022년 1~3분기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동기 대비 반등 폭이 2020년 하락 폭의 60% 정도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 국내는 약 40%만 회복되었다. 2023년 중국 경제는 중국 주민들의 한계소비성향에 의해 결정되는바 이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소비상품권 무료 지급과 같은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가별 한계소비성향 회복 현황



2023년 중국 주민 1인당
소비지출 예상 증가율

8~12%

사회총소비액
예상 증가율

7~11%

해외 진출의 쉽고 빠른 지름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컨소시엄'

해외 전시회와 상담회는 수출을 원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거쳐야 하는 일종의 통과리데다. 하지만 이제 막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시회 및 상담회 준비가 막막한 것이 현실. 이런 걱정을 덜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사업이 있으니, 바로 '수출컨소시엄'이다.

● 해외시장 개척의 든든한 파트너, ●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출컨소시엄은 중소기업 글로벌화와 수출 촉진을 위해 동일·유사·이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현지 마케팅 전문 기업 및 해외 민간 네트워크와 함께 수출 구조 고도화를 계획하고, 공동으로 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사전준비, 참가, 현지 활동, 사후관리 등 단계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컨소시엄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수출 컨설팅, 해외 마케팅, 전시·상담장 임차 및 장치, 물품 운송, 초청 바이어의 국내 활동, 공동홍보부스 운영, 통역, 간담회 개최 등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수출 판로 개척과 관련된 각 과정을 일정 한도 내에서 70~100%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컨소시엄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에 접속한 후 '사업신청' 카테고리 '전시회'와 '상담회'를 클릭해 참여하고 싶은 수출컨소시엄을 확인한 뒤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2023년 눈여겨봐야 할 해외 전시회

태국 방콕 식품 박람회 THAIFEX Anuga

개최 기간 5월 23~27일

주관 단체 (주)글로벌에프엠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이자 아세안 최대 기업 간 거래 B2B 식품 박람회로, 매년 50여 개국 3,000여 명의 기업 관계자 및 바이어와 6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가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 화장품 전시회 CNPA

개최 기간 7월 11~13일

주관 단체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2022년 약 43개국 650개사, 방문객 3만여 명이 참가한 세계 3대 뷰티 박람회로, 화장품, 성형외과, 스파, 미용, 헤어, 아동, 네일 등 다양한 뷰티 관련 제품을 선보인다.

독일 베를린 가전박람회 IFA

개최 기간 9월 1~5일

주관 단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세계 3대전자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0여 개 기업과 3만여 명의 방문객이 참가한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석유가스 전시회 ADIPEC

개최 기간 11월 6~9일

주관 단체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 전문 전시회로, 석유 및 가스 관련 밸브와 펌프 등 관련 기자재 기업과 계측제어, 선박 등 석유가스 산업 관련 품목 기업들이 두루 참가한다.



현지 바이어와의 사전 소통

전시회에서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시회 참가 전 미리 현지 바이어와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현지 바이어에게 제품의 특징 및 장점을 어필하고 미팅 일정까지 잡은 뒤 전시회에서 제품 실물을 소개하면 계약 성공률이 한층 높아진다.

수출컨소시엄 주관 단체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가 들려주는
해외 전시회 효과 향상 노하우

전시 공간과 분리된 미팅룸

사방이 트여 있는 테이블 위에서 계약 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요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전시 부스 구성 시 전시 공간과 분리된 미팅룸을 안쪽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제품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기업 홈페이지, 상세 제품 소개 페이지 등을 충실하게 보완·개선한 뒤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면 제품을 더욱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국관 전시는 '오픈 마인드'로

대부분의 해외 전시회에는 각 국가별 기업들을 한데 모아 제품을 전시하는 국가관이 마련된다. 만약 한국관에서 전시회를 참가하게 되었다면 기업들 간에 어느 정도 전시 공간을 공유하는, 열린 전시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도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전시회 초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전시 아카데미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해외 전시(상담)회 전문 인력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0차시에 걸친 5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중소기업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 내 '공지사항'에서 해당 교육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2023년 바뀌는
세법개정안

2022년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중점으로 세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되는 내용 중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알아야 할
이슈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 경쟁력 제고

- 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로, 구간 별로 법인세율을 1%씩 하향 조정한다.
- ② **해외·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해외 자회사(지분율 10% 이상)에서 국내 모회사에 배당 시 익금불산입하고, 국내 자회사에서 배당 시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지분율 50% 이상 익금불산입 100%, 지분율 20% 미만 익금불산입 30%, 그 외 80%)을 조정한다.
- ③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과세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 ④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출 방식을 사업 부문별로 산출하도록 해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해 과세한다.

2. 일자리·투자세제 지원 강화

- ①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상시고용 증가 인원(예: 1인당 세액공제액을 850만 원(기존 700만 원)으로 상향(지방 770만 원~950만 원)하고, 청년정규직(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하여는 1,450만 원(기존 1,100만 원)으로 상향(지방 1,200만 원~1,550만 원)한다. 추가로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1인당 1,3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다.
- ② **국가전력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력기술 등에 투자하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투자세액공제율(중소 최대 35%, 중견·대기업 최대 25%)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법 통과 시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 ③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납부 대상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상장·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



정현주 세무법인 세일 화성지점 대표세무사
전 IBK기업은행 기업지원 컨설팅부 수석세무사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을 1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다.

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한다.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① **기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가업승계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으로 상향한다.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은 최대 주주 4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한다. 사후관리 요건은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으며, 5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 ② **증여세과세특례제 실효성 제고**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의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표이사 취임 시기를 3년(기존 5년) 내로 단축하고, 기본공제는 10억 원(기존 5억 원)까지 높이고, 과세표준 60억 원(기존 30억 원) 초과 시 세율을 20% 적용한다.
- ③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기존 30억 원 이던 증여세 과세금액을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 ④ **가업승계 납부유예제도 도입**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총 상속재산가액 중 가업상속재산가액 비율만큼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사후관리는 고용(70%)·지분 유지 조건은 적용하고, 업종 유지 요건은 면제된다.
- 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등법상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금융 시장 활성화

- ①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과세 도입·유예** 주식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보호제도 정

비 등을 고려해 당초 2023년 도입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을 2025년 도입으로 2년 유예한다.

- ②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및 시행 시기 연기** 종목당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대주주(직전연도 말 기준 지분율이 코스피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로 간주해 양도세를 과세한다.
- ③ **증권거래세 인하**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2022년 0.23%·2023년 0.2%·2024년 0.18%·2025년 0.15%).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0~1,400만 원 세율 6%, 1,400만~5,000만 원 세율 15%로 세율 구간을 조정한다.
- ②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한해 월 20만 원(기존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로 한도를 상향한다.

2. 중소기업 지원

- 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3. 지역균형발전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제도 개선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개선한다.

4.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 부담 상한 조정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주택분 중부세 세율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일반 9억 원) 공제하며, 중부세 세 부담 상한액도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150%로 조정한다.

*위의 개정 내용은 시행령에 관한 개정 사항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이후 변동될 여지가 있다.

2023년 바뀌는
노무 이슈

노동법령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된 법령에 익숙해져야
한다. 2023년이 되면서 변경되는
노동법령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 성차별 차별 시정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로 확대 적용

2022년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또
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노동위
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차별 시정을 노
동위원회에서 처리함에 따라 직장 내 다양한
성차별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기존 민사재판을 통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 구
제가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

노동위원회 국선 노무사 선임 확대

2022년 1월부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까지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근로자가
법률대리인으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
임해 변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월평
균 임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최저임금 전년도 대비 5%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2년은
9,160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된 것이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임금은 월 201만58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1주 차에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에 구분 없이 하나의 최저
임금만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적
용되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2024년 1월부터 적
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재해라고 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
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
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시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
해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벌금의 경우 최대 10배나 높다. 안
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
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 준수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
업장은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해
야 한다(건설업 사업장은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일부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도 대
상이다.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동포 외국인력 허용 업종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방문취업^{H-2} 비자
체류자의 취업 허용 업종을 숙박업, 출
판업을 비롯한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확
대하도록 하고, 이에 별표1의2를 개정,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가능 업종 열거(포지티브) →
제한 업종 제외(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변경

종전에는 H-2 비자 체류자의 취업 허
용 업종은 300인 이하 제조업, 건설
업, 일부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으로
제한했으나,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고용
범위를 확대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
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업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수당
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업급여
부분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
자가 50%씩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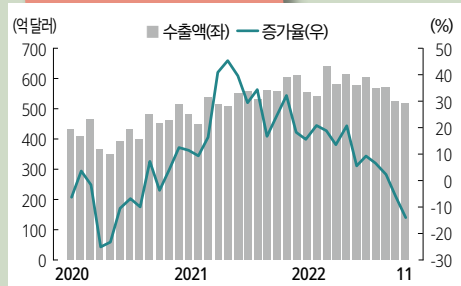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직업능
력개발 부분은 사업주가 고용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고용 변
동에 따른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 안정 지원사업과 근로자
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2022년까지는 10인 이상 사
업장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 부분)을 지원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
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내국
인과 동일하게 적용
된다.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KOREA

수출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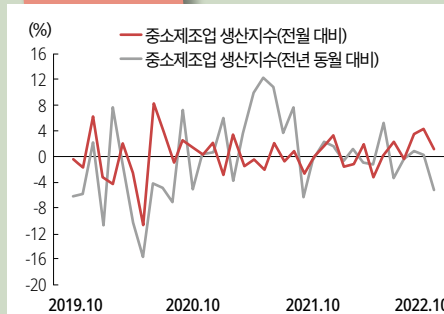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는 다소 안정

11월 수출(518.9억 달러)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 수요 약화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하며 2020년 8월 이후 27개월 만에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2021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90억 달러를 하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 안정세로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하며 상승 폭이 축소(5.7%→5%)되었으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오름폭을 유지(4.8%→4.8%)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동비, %): 1.2(2020.1)⇒0.9(2021.1)⇒3.6(2022.1)⇒5.6(9)→5.7(10)→5.0(11)

생산



자료 통계청

Small Business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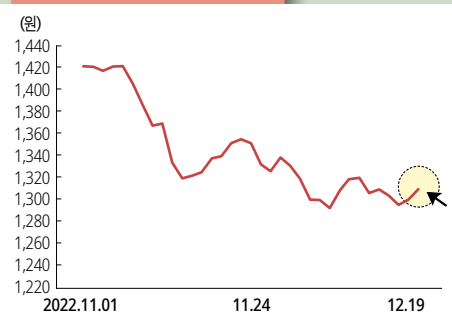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22년 10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5.2%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기타운송장비(5.5%), 반도체(0.9%), 통신·방송장비(1.9%)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7.3%), 기계장비(-7.9%), 의약품(-10.1%)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자동차(22.8%), 기타운송장비(16.0%), 기계장비(5.7%)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26.3%), 1차금속(-18.5%), 화학제품(-13.2%)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Exchange Rate

원/달러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12월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장세

(2022.11.21일 1,340원→12.6일 1,293.2원→12.19일 1310.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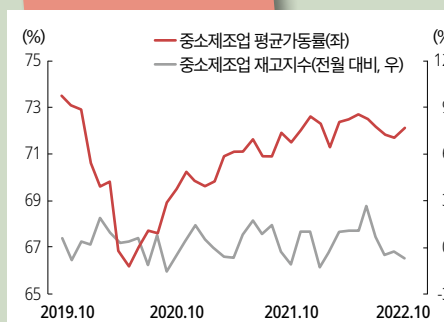
12월 원/달러 환율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1,29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장중 1,320원대로 올라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023년 1분기 말 환율 전망은 1,364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3년 1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364원으로 조사되었다. '1,330원 이상 1360원 미만'으로 전망한 IB가 모건스탠리(1,340원) 등을 포함해 4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2.11.18~12.16일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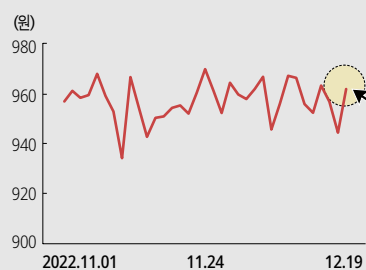
2022년 10월 중소제조업 전체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하락한 72.1%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기업(5~49인)은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69.1%, 중기업(50~299인)은 0.2%포인트 상승한 75%로 조사되었다.

재고, 전월 대비 감소

2022년 10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통신·방송장비(37.1%), 전자부품(8.1%), 비금속광물(8.2%)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5.4%), 1차금속(-4.8%), 화학제품(-3.3%)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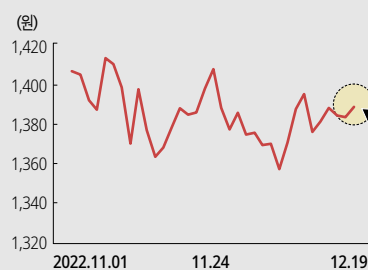
원/100엔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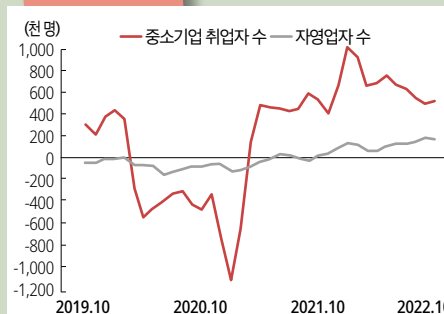
원/위안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고용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2년 10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1만3,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7,000명 증가,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50만6,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38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2년 10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이 증가해 573만4,000명을 기록했다.



문제가 기회를 만든다 AMD 리사 수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의 만년 2등 AMD. 인텔을 넘어서겠다는 당찬 포부와 함께 새로운 아키텍처를 내놓았으나 결과는 처참했다. 망해가는 회사에 그것도 여성 엔지니어가 등장했다. 시장은 “리사 수 Who?”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사장으로 취임한 그녀는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전략으로 AMD를 회생시키는 데 성공한다.

.. 리사 수는 1969년 대만에서 태어났다. 세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으며, 어려서부터 공학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렇게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입학해 전기공학 학위를 받는다. 석·박사 학위를 마친 후에는 학계가 아닌 현업을 택했고, 정보기술(IT)을 거쳐 IBM 반도체 연구 개발부서에 몸담는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논문을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쌓는다. 공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며 탄탄대로를 걷던 어느 날, 리사 수는 한 통의 연락을 받는다. IBM에서 근무할 당시 선배이자 현재는 AMD 이사회 임원으로 있는 니콜라스 도노프리오로부터 AMD 합류를 제안 받은 것이다. 그는 위기에 빠진 AMD를 탈바꿈시킬 수 있는 인물은 리사 수뿐이라고 믿었고, 제안을 받은 그녀 또한 흔쾌히 수락했다. 곧 AMD의 부사장으로 취임하는데 이때가 2012년이다.

이 시기 AMD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사실 신제품 출시 실패는 어느 회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대량의 자본을 투입하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신제품 불도저의 허위 스펙 광고로 소비자에게 소송까지 당했으니 시장 평가가 좋을 리 없었다. 벼랑 끝에 선 리사 수는 3가지 선택을 내린다.

사업 다각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

첫 번째는 기존 그래픽카드 가격을 낮추는 일이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결국 가성비를 따르기 마련이다. 가격을 낮추자 곧 수요는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늘이 도운 덕분인지 이 시기 유행한 암호화폐 채굴 작업에 AMD 그래픽카드가 쓰이면서 매출에 도움을 줬다고 한다.

두 번째는 가속처리장치(APU) 시장 공략이다. APU는 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하나로 묶은 제품인데, 태생이 그렇듯 때를 못 만나면 이도 저도 아닌 취급을 받는다. AMD의 APU 역시 어중간한 성능으로 시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때 리사 수는 게임기 시장에 주목한다. 사실 CPU라고 해서 꼭 PC에만 들어갈 이유는 없다. 곧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소니에 공급을 제안했고, 작으면서도 고성능의 게임기를 만들고자 한 업체의 요구와도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출시된 게임기가 엑스박스(XBOX), 플레이스테이션이다. 두 게임기는 출시 후 시장에 큰 돌풍을 일으켰고, AMD 실적 개선에도 기여했다.

제품 개발까지 타협할 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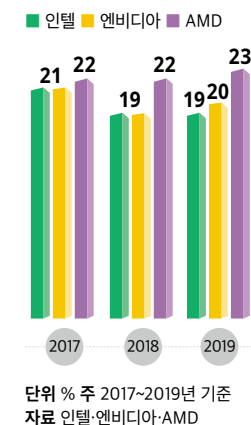
리사 수의 세 번째 선택은 바로 AMD의 기술력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현재 AMD가 위기인 상황인 건 분명하나 인텔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리사 수는 기술력 회복만이 AMD의 미래임을 확신했다. 익히 알려져 있듯 반도체 시장은 마케팅 전략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 오로지 품질만이 성과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CPU 시장에서 AMD는 인텔에 비해 연구·개발(R&D) 규모가 작은 게 사실이다. 이를 잘 아는 리사 수는 APU에서 창출한 수익을 R&D에 투자했다. 불필요한 지출도 최대한 줄였다. 그렇게 공학자 짐 켈러를 필두로 정예 개발

강준형 도서출판 경제21C 대표
도서출판 경제21C 대표로 <딱 이만큼의 경제학>,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제학 시리즈> 등을 출간했다.



인텔·엔비디아·AMD 매출 대 R&D 투자비용 비율



팀을 꾸리는데, 바로 젠 프로젝트다. “실패라는 선택지는 없다”며 직원을 독려했고, 마침내 노력 끝에 탄생한 제품이 라이젠 RYZEN이다. CPU의 판도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이 제품은 AMD의 귀환을 알림과 동시에 인텔 중심의 경직된 반도체 시장에 경쟁의 불씨를 틔웠다.

2023년 우리 경제는 전년 못지않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전략으로 ‘원가 절감 및 긴축 경영’(61.2%)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드넓은 바다로 나가기보다는 항구에 정박하며 풍랑을 버텨야 할 때라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를 잘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리사 수의 3가지 선택

공학자였던 리사 수는 위기에 빠진 AMD를 회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리사 수는 3가지 경영 방침을 택했다.

1. 가성비 옵션을 위한 제품 가격 조정
2. APU 시장 공략을 통한 사업 다각화
3. 기술력 회복을 위한 R&D 투자

쉽고 빠르고 안전한 '새로운 IBK기업뱅킹'

기업의 금융 업무를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IBK의 새로운 기업뱅킹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객별 맞춤 서비스로 쉽게!

대표이사, 실무자, 소상공인 등
고객별 맞춤 정보 제공
기업 자산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기업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업무와 중요한 금융 정보를
챙겨주는 통합알림 서비스 제공

영업점 방문 없이 빠르게

개인사업자 비대면 대출 신규·연장,
외화송금, 해외투자, 수출입 업무 등
각종 외환 업무를 비대면으로
개인사업자 카드 발급 및 법인 카드
추가 발급 가능

자금 통제 기능으로 안전하게

관리자와 이용자로 나뉜
다단계 결제 서비스 제공
대직자 설정, 결제 방식 다양화로
편리한 결제 라인 설정
야간, 주말 이용 제어가 가능한
이용시간 제어 서비스

주요 제공 서비스

비대면 상품 가입

다단계 결제

B2B 결제

급여·대량 이체

퇴직연금

공과금

증명서·결산자료 발급

예금, 대출,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복수의 이용자 번호를 두어 결제 라인을 지정하고, 최종 결제자의 승인을 통해 거래 진행
전자어음, 외상매출채권, 기업 간 거래(B2B) 팩토링 등 서비스 약정 및 조화·대출 신청 가능
직원들의 급여 이체 및 1회 최대 5,000건의 대량 이체 가능

가입자 관리, 부담금·수수료 관리, 상품 운용 신청, 퇴직급여 지급, 재정 검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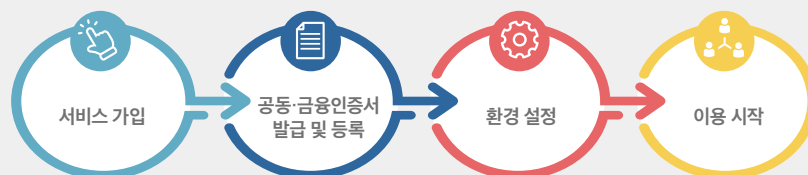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공과금 조화·납부

원천징수영수증, 부채증명원, 잔액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및 결산자료 발급



기업 인터넷뱅킹

기업 스마트뱅킹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기업스마트뱅킹을 통해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본인확인서류 지참해 영업점 방문

기업스마트뱅킹 앱 다운로드

http://one.ibk.co.kr(모바일 전용 다운로드 페이지) 또는 앱 스토어(App Store),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에서 'i-ONE뱅크 기업' 조회 후 설치



App Store
i-one뱅크 기업 검색 후 설치



Play Store
다운로드 바로가기



App Store
다운로드 바로가기



Play Store
다운로드 바로가기



쉽고 빠르고 편리한 IBK기업뱅킹
웰컴가이드로 시작해보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7089호(2022.12.30) 게시기한(2023.12.2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일상에선 개인카드로,
비즈니스 할 땐 법인카드로
경계 없는 CEO 라이프를
한 장의 카드에!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세상을 산다



CEO dual 카드 단 한 장으로 CEO의 일과 삶, 모든 순간 품격이 되다!

CEO의 라이프를 완성하는 혜택

Dual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한 장으로 결합

CEO 토탈서비스 골프, 여행 등 CEO가 선호하는 프리미엄 혜택 제공(개인)
Air Money 포인트 국내외 항공권·국내골프장 그린피 결제 가능(개인·기업)
기업카드로 결제해도 개인에게 포인트 적립

발급대상 : 개인 + 기업 지정자 ※ 단독발급은 개인카드만 가능
브랜드 및 연회비

Dual(개인+기업) Master 23만원, BC(국내전용) 22.4만원
개인 Master 22만원, BC(국내전용) 21.5만원
기업 Master 1만원, BC(국내전용) 0.9만원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1566-2566)에 문의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환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3750호(2022.07.22) 유효기간(2025.07.21)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C11-05376호 (2021.06.23) ·이 안내장은 2022.04.15일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ibkethics@ibk.co.kr)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왜 IBK기업은행은 금융에 '주치의'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기업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BK기업은행의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은
기업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준비합니다.

재무상태 진단

신용도 및 심층 재무분석으로
개선방안 제시



맞춤형 솔루션 추천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안내



기업 역량 및 업황 진단

기술력, 인력, 거래처 등과
업황 전망을 내·외부 데이터로 분석



금융거래 현황분석

차입금, 이자율, 담보 등을
분석 후 개선방안 제공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IBK금융주치의 프로그램**

IBK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이란, IBK기업은행의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을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입니다